

이야기 6 : 나아만 장군

주제말씀
[열왕기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가까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아주 높은 군대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왕은 나아만 장군을 아주 사랑하고 아꼈어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은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손가락과 발, 눈썹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 것도 느낄 수 없게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군님이 우리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거예요.”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곧 이스라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선물도 아주 많이 마련해서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하인이 나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면 몸이 깨끗해진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의 하인들이 말했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나아만 장군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아만 장군이 여섯 번째 들어가서 씻었지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몸을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고,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났던 곳은 새살이 하얗게 돋아나와 있었어요.

그 일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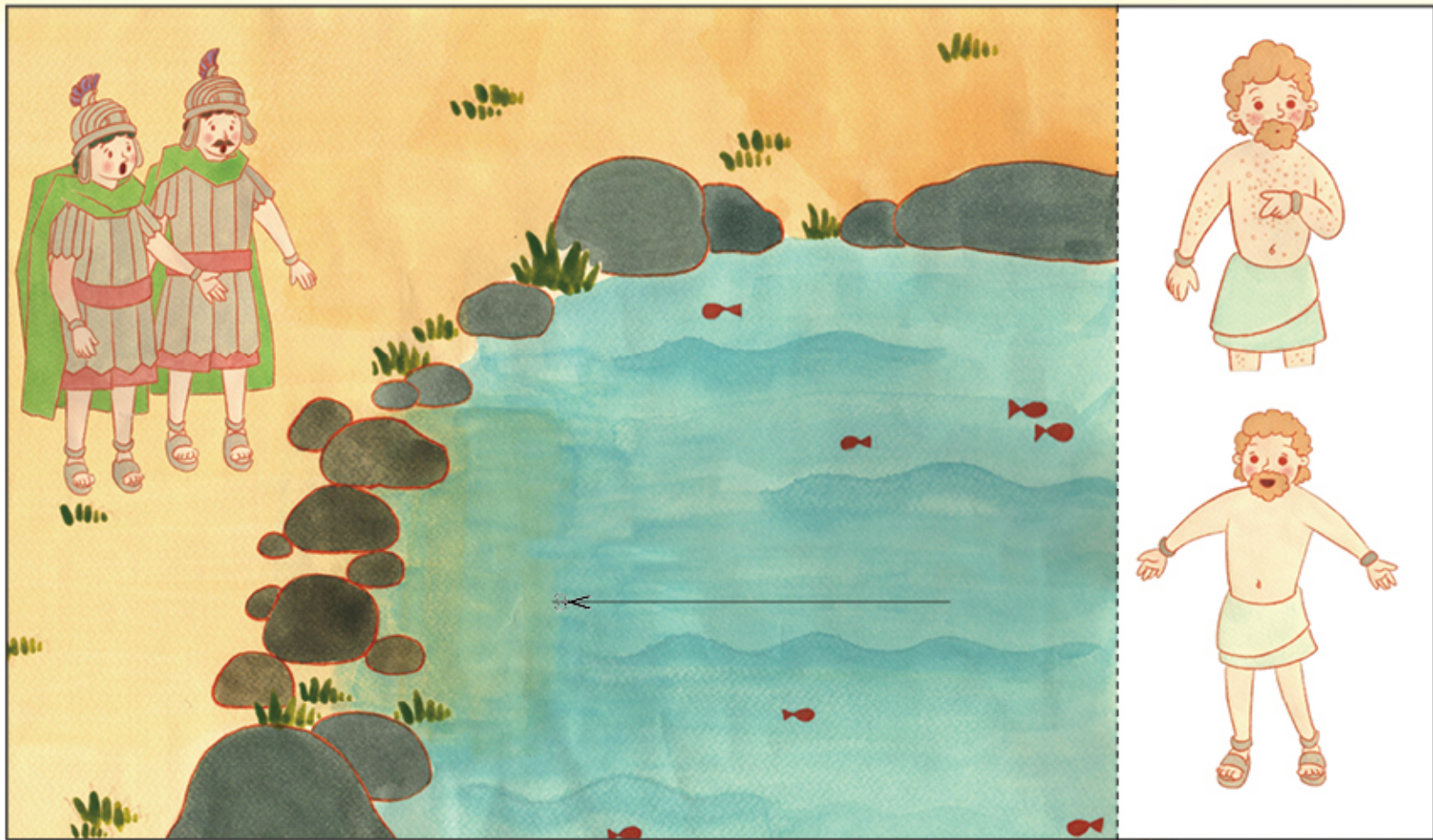




활동 1.

다음 순서에 따라 만들어보세요. 준비물: 풀, 가위, 아이스크림 막대 2개

1. 강 가운데에 표시된 곳을 자르세요.
2.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과 다 나은 나아만 장군을 오려서 아이스크림 막대에 붙이세요.
3. 오늘 배운 이야기처럼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강에 넣고 위, 아래로 일곱번 움직인 후에 다 나은 나아만 장군으로 바꿔보세요.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열왕기하 5:14)

깨끗하게 되었더라